ISSN 3022-8514(Online)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2호 (2023.04.28)

- **이 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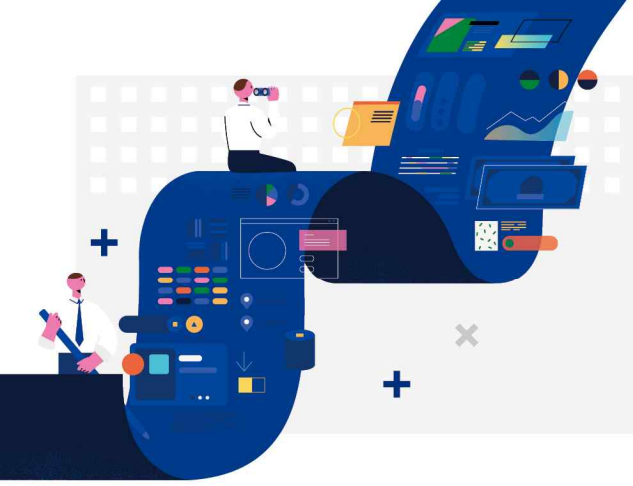
  (산업) K-Food의 성장과 인천의 기회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2호 (2023.04.28)

Cotents

Ⅰ. 이 슈

(산업) K-Food의 성장과 인천의 기회 ····· 1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 5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 8

Ⅲ. 국내 정책동향

(환경)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첫 최상위 법정계획 수립 ····· 9

(경기) IMF,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 1.5% 전망 ····· 9

(행정) '주소정보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 본격 추진…도로명주소의 입체화 ····· 10

(국토) 국토부, '2023 지역개발사업' 공모 실시 ····· 10

(보건) '제3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 발표…14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11

(산업) 인천시,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지구 후보지에 선정 ····· 11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김효영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국제 K-Food의 성장과 인천의 기회

#K-푸드 #한식의 경쟁력 #해외진출 #시장 트렌드 #전략산업화

○ 일명 K-Food로 불리는 한식에 대한 관심은 △K-pop 및 K-드라마 등의 한류 문화 △온라인 유통채널 발달 △건강식 트렌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 등의 이유로 전세계로 확산 중

- K-pop, K-Drama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한류의 확산과 OTT와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한국의 음식 역시 '한국 문화'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지며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
  -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의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문화콘텐츠를 통해 한식을 접함으로써, 기존의 '한식'하면 떠오르는 '삼겹살', '비빔밥', '불고기' 이외의 다양한 한식 메뉴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유튜브,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식 챌린지, 한식 먹방 등과 관련한 콘텐츠가 증가하며 K-Food의 판매량 증가에 영향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온라인 유통채널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한식에 대한 접근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점 역시 K-Food의 해외 진출에 기여
  - 한식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본 한류스타의 식생활 모방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 이외에도 △코로나19 속 간편식 수요 증가 △한식의 '면역강화' 이미지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채식 트렌드)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세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
- 국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의 농수산식품 총수출액은 전년 대비 5.2% 성장한 11,962.3백만 달러를 달성
  - 특히 빵, 면 등의 가공식품 및 각종 한식소스류와 주류 등을 포함하는 농산물 부문이 농수산식품 총수출액의 약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수산식품 수출액 증가를 견인

〔표 1〕 최근 5년간 국내 농수산식품 수출액 추이

(단위 : 백만$, %)

구분	'18.12	'19.12	'20.12	'21.12	'22.12
농수산식품	9,300.3	9,529.2	9,868.8	11,373.7	11,962.3
농산물	5,984.6 (64.3)	6,146.3 (64.5)	6,675.2 (67.6)	7,542.8 (66.3)	7,713.8 (64.5)
축산물	417.5 (4.5)	460.75 (4.8)	495.7 (5.0)	550.9 (4.8)	602.4 (5.0)
임산물	523.7 (5.6)	418.7 (4.4)	393.4 (4.0)	464.4 (4.1)	507.5 (4.2)
수산물	2,374.6 (25.5)	2,503.5 (26.3)	2,304.4 (23.4)	2,815.5 (24.8)	3,138.5 (26.2)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 참고 및 재구성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해외 한식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해외의 평균 한식 인지도는 2021년 대비 1.8%p 상승한 57.6% 수준

- 동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식 인지도가 높은 지역은 '자카르타(83.2%)', '북경(82.6%)', '호치민(82.4%)' 순으로, 주로 동남아,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식의 인지도가 확대[1)]
  - 2022년 기준 한식에 대한 만족도는 94.2%로 지난 5년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식당 만족도 및 한식당 재방문 의형 역시 각각 89.9%, 87.8%로 해외 소비자의 한식에 대한 만족감은 높은 편
- 조사결과 한식 취식 경험자의 69.1%가 한식 조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험률이 74.6%로 타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한식 간편식에 대한 전체 인지도는 38.3%로 도시별 인지도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한식 간편식 인지자 중 85.5%가 간편식을 이용해 본 것으로 조사
  - 한식당 방문 경험율은 약 65.0%로 인접국인 동남아시아(84.8%) 및 동북아시아(75.4%)의 한식당 방문 경험이 많고, 유럽 및 남미의 경험률을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다만 한식에 대한 전환율은 '선호->최선호', '최선호->충성' 구간이 다른 단계에 비해 낮아 유통 및 접근성 강화, 타 음식과의 차별화 등을 통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한식 비경험자 및 최근 1년 이내 비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식 비경험 이유로는 △먹을 기회가 없음 △집/직장 근처에 한식당 없음 △먹을 동기 없음 등으로 조사되어, 잠재 이탈자 방지 및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한식당 접근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한식진흥원, "2022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분석편]"

〔그림 2〕 한식에 대한 전환율

○ 그러나 대한상의의 '한식산업화 국민 인식조사 및 공모전' 결과에 따르면 설문응답자의 대다수가 '한식의 산업화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K-Food 및 연관산업의 제대로 된 해외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해외에서 한식의 산업화가 미진한 이유로는 '한식에 대한 인식 및 홍보 부족(48.3%)', '명칭 및 조리법 비표준화(46.7%)', '해외에서의 한식 식재료 수급 어려움(33.5%)' 순으로 조사

1) 2022년 기준 해외 한식 소비자의 한식 호감도 65.2%로, 지난 5년간 60% 이상을 유지.

- 한식의 산업화를 위해 대외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건강식·웰빙(69.1%)', '젊고 힘함(42.1%)', '고급스럽고 정적인(41.4%)', '매운맛 등 특색있는(20.3%)' 등이 선호
- 이에 한식진흥원에서는 일본·태국 등의 음식이 국제무대로 나설 때처럼 '한식에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인식되게 할 것이냐'가 한식의 세계화에 있어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

- 또한 전세계적으로 K-Food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 및 태국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제품의 상표 디자인 또는 제품명 등을 모방한 제품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한식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
  - 일식이 해외에서 일본식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같이 한식 역시 메뉴나 제품의 명칭 등을 고유명사화하여 한식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또한 이미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해외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

○ **2023년 2월, 농식품부는 K-Food(국산 농식품)를 포함한 전·후방산업의 수출을 확대하여 농산업 분야의 혁신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

- K-Food란 한국 농식품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번 K-Food+는 K-Food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농식품과 연관된 전·후방산업을 플러스(+)해서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
  - 2022년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포함하는 국내 농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88.2억 달러로, 2021년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식품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기준 전세계 196개국으로 수출 중인 K-Food는 전후방산업으로 연계된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해외 농업기반시설 건설공사 수주 등의 수출로 이어지는 시너지 창출
- 이에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는 "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 2023년 K-Food+ 관련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수행할 계획
  - 이전까지 스마트팜·농기자재·동물용 의약품 등의 농식품 전후방산업은 국내 주요 수출정책에서 빗겨나 있었으나, 해외에서는 해당 분야의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의 수출 가능성이 풍부할 것으로 전망
-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6일 한국의 농식품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 식품(펫푸드) 등 연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출범
  - 추진본부는 수출 관계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K-Food 및 연관산업의 수출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 수출정책 소개 △권역·품목별 수출실적 점검 △현장 애로사항 해결 △협력과제 발굴 등 수출환경변화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
  - 추진 분야를 농식품,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의약품 등 4개로 구분하고, 주요 수출기업 및 산업 유관기관, 협회 등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의 현장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2)]

〔표 2〕 농림축산식품부 “K-Food+ 수출 확대 전략” 개요

구분		주요내용
주요 과제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 (신선) 수출통합조직 육성 및 유통·물류 효율화 • (가공) 업체 경영안정 및 품질제고 지원 • (新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유망산업 집중 육성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	• (스마트팜) 해외 시범온실 조성 등 진출기반 확대 • (농기자재) 신시장 개척, 기술개발 등 지원 • (동물의약품, 해외건설수주) 신규시장 개척 및 전략사업 타겟팅
	수출시장 다변화	• K-Food+ 수요가 높은 신규시장으로 진출 확대 • 주요 수출 품목 마케팅 지원 강화
추진체계		•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운영 • 자금지원체계 확충 • 애로 해소 및 정보 제공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K-Food+ 수출 확대 전략” 참고 및 재구성

○ **K-Food 및 관련 전후방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인천시는 전통적인 식료품 가공업종 및 유관 기업을 수출경쟁력 있는 지역 산업군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K-Food 및 연관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동향과 주요국 소비트렌드에 기반한 전략개발이 필요**

- 인천의 경우 관내의 내항을 통한 곡물 등 식품 원자재 유입이 활발하여 내항 인근에 식료품 가공공장이 집적되어 있고, 인천시 서구에는 식품업체 전용 산업단지인 ‘아이푸드파크’ 1단계 사업이 2021년 7월에 완공·운영되는 등 식품 가공분야의 산업기반이 탄탄
  - 인천내항은 동아시아 최대 곡물항으로 5개의 사일로 시설[3]을 갖추고 있어 현재까지도 곡물운반선과 원당운반선의 하역지로 이용
  - 이외에도 인천내항을 통해 처리되는 곡물은 △내항 식품업체에서 가공식품 전환 및 수출 △반려동물의 사료로 공급 △수도권 축산농가에 사료 공급 등의 역할
- 그러나 지역기반 이점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내 식품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K-Food 관련 분야의 수출액을 증대하고, 식품산업을 지역 전략산업화 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
  - 인천지역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최근 10년(2013~2022) 평균 2.5%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1월~2023년 3월의 농수산식품 수출 실적은 보합 수준

2) 장관(추진단장) 분기별 1회, 농업혁신정책실장 월 1회, 각 국장 수시 협의체 개최.
3) 한진, 선광, 대한통운, 대한싸이로, ㈜한국TBT 등 5개 업체가 사일로(원형 곡물창고)를 운영 중이며, 총 저장용량은 96만 톤으로 국내 식량 공급 및 식료품 생산·수출의 큰 축을 차지.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 2022년 3월 기준 반도체산업은 D램 등의 재고누적 및 공급과잉 등에 따른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엔데믹화로 모바일·PC 등 IT부문의 업황이 악화되는 등 산업 내외부 요인으로 인해 수출 부진이 지속[4)]

- 반도체 수출액은 2022년 8월 이후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규모가 감소
  - △IT부문 업황 악화로 인한 시스템 반도체 동반 부진 △2022년 3월의 높은 기저효과 역시 2023년 3월 수출감소의 원인으로 작용
- 특히 D램 및 낸드 등 메모리반도체 제품의 가격이 수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며, 반도체 수출감소에 영향
  - 국제 시장에서 D램 고정거래[5)] 가격이 2022년 8월에 비해 약 36.5% 하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낸드플래시 고정거래 가격 역시 같은기간 약 11.1% 하락
  - 반도체 업황이 단기간에 급격한 개선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3분기부터는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며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표 3〕 반도체 수출액 및 주요품목 가격

(단위 : 억$, $)

구분	'22.08	'22.09	'22.10	'22.11	'22.12	'23.01	'23.02	'23.03
반도체 수출액 (전년동월비 증감률)	107.8 (-7.8%)	114.9 (-5.7%)	92.3 (-17.4%)	84.5 (-29.8%)	90.6 (-29.1%)	60.0 (-44.5%)	59.7 (-42.5%)	86.0 (-34.5%)
D램 고정가격	2.85	2.85	2.21	2.21	2.21	1.81	1.81	1.81
낸드플래시 고정가격	4.42	4.30	4.14	4.14	4.14	4.14	4.14	3.93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2023.04.01.)' 참고 및 재구성

○ **(전국)** 우리나라의 2023년 2월 반도체 생산지수는 하락추세에 있으며, 3월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 2월 대비 소폭 증가

- **(생산지수)** 2023년 2월 국내 반도체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13.3%, 전년 동월 대비 36.1% 감소한 76.6으로, 지난 1월에 이어 하락추세가 지속

4)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3월 수출입 동향(2023.04.01)'.
5) 고정거래란 기업 간 사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로, 현물시장에 비해 규모가 크고 반도체 시장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침, 현물시장 가격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현물가격으로 대략적인 추세 예측이 가능함.

• 전국 반도체 제조 부문 생산지수 역시 전월 대비 16.2%, 전년 동월 대비 41.8% 크게 하락한 78.2 수준으로, 당분간 기업들이 반도체 재고 조정 및 세계경기 둔화로 인해 감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품목별 수출액)** 반도체는 모든 품목에서 전월 대비 수출액이 반등하였으나, 지난 2022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회복이 더딘 모습

•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액은 2022년 10월에 하락 국면으로 전환한 이후 급격하게 낙폭이 확대되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2.8%, -44.8%, -20.3% 수준

• 반도체 디바이스 수출액은 전월 대비 9.0%,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한 386,339천 달러로, 지난 12월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

○ **(인천)** 2023년 2월 기준 인천지역의 생산지수는 전국 추세와 같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도체 부문 수출액은 품목에 따라 추이가 상이

- **(생산지수)** 2023년 2월 기준 반도체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16.3%, 전년 동월 대비 11.5% 감소한 109.0으로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있으나, 전국(78.2)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

- **(품목별 수출액)**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전국 추세와 달리 전월 대비 소폭(2.9%) 감소한 반면, 이외의 품목에서는 전월 대비 상승

•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2022년 7월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3년 3월 기준 전월 대비 26.6% 상승한 838,245천 달러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3.3% 급락하여 약 절반 수준

• 반도체 디바이스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수출액 변동폭이 좁아지며 보합세

•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액은 전월 대비 75.4% 크게 상승하여 지난 2022년 3월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성과를 달성

〔표 4〕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지역	항목	'22.11	'22.12	'23.01 (p)	'23.02 (p)	'22.02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전자부품 등 제조업	104.3	102.2	88.4	76.6	119.8	-13.3	-36.1
	반도체 제조업	108.3	114.7	93.3	78.2	134.4	-16.2	-41.8
인천	전자부품 등 제조업	137.5	131.1	130.3	109.0	123.2	-16.3	-11.5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악 및 통신 장비 제조업(C26)' 및 '반도체 제조업(C261)'의 자료를 이용함. 인천지역 자료의 경우, '반도체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위 항목을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시스템 반도체(HSK854231)]

[메모리 반도체(HSK854232)]

[반도체 디바이스(HSK8541)]

[반도체 제조장비(HSK8486)]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반도체 품목별 수출 동향(2023.03)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3.03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104,641	-2.6	142,824	-31.0	38,182	11,932	-18.0	13,853	-29.0	1,921
자동차	20,116	11.1	84,845	43.3	64,729	1,289	26.4	8,354	51.4	7,065
기계장비	60,497	-2.5	65,240	-8.7	4,743	3,955	-29.1	5,460	19.5	1,505
바이오-의약	7,546	-34.9	5,812	-13.5	-1,734	784	-14.1	3,365	-23.0	2,581
바이오-화장품	1,936	5.3	7,636	9.8	5,674	22	-11.6	1,286	-24.5	1,263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 동월 대비 비율로 표기

환경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첫 최상위 법정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지난 4월 1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23년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

- 동 계획안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제시
  - 12대 과제에는 △원전 및 재생에너지의 조화 △공정전환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전환 △건물 에너지자립·환경친화적 활동을 통한 국토의 저탄소화 △기후기술 관련 기술혁신·규제개선 △원전·수소산업·CCUS 등의 핵심산업 육성 △기후대응 관련 재정지원 및 투자 확대 △에너지 수요효율화 및 제도 개혁을 통한 에너지소비 절감 △지역 맞춤형의 지방중심정책 추진 △기후관련 산업·일자리 전환 △기후적응기반구축 △기후대응 연대를 통한 국제사회 선도 △정책 과제별 상시 이행관리 등이 포함
- 동 계획안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될 예정

경기 IMF,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 1.5% 전망

#국제통화기금(IMF)

○ 지난 4월 11일 국제통화기금(이하 'IMF')은 「2023년 4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전세계 및 지역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

- 동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이 종전보다 0.2%p 낮은 1.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4년 역시 종전보다 0.2%p 하향조정한 2.4%가 될 것으로 예상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이전보다 소폭 하향 조정한 2.8%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5년 기준 세계 경제성장률은 3.0%로 1990년 4월 이후 역대 최저 예상치를 기록
  - 지역별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1.3%,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은 3.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IMF는 동 보고서에서 2023년 경제가 험난한 회복과정에 놓여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중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시장 불안 확산 등으로 인한 우려를 지적
  - 또한 지나치게 상승한 공공 및 민간 부채와 더불어 신흥국·개도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 스프레드 상승 역시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제시하며,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긴축통화정책 유지의 필요성 제시

행정 ‘주소정보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 본격 추진…도로명주소의 입체화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이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에 사용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개편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 착수보고회를 진행

- 2011년 구축 이후 12년 만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동 사업은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여 2026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 사업은 올 12월에 완료할 계획
- 1단계 사업에서는 수기로 처리해왔던 주소업무를 전산화한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입한 입체주소체계를 시스템에 구현함과 동시에 주소 관련 자치단체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할 예정
  - 시스템에 입체주소체계를 구현하면서 지금까지 지상도로와 건물에만 부여했던 도로명주소를 고가·지하 등 입체도로와 건물내부 동·층·호·지하상가 등 사물, 공간 등에 확대 부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
- 향후 2·3단계 사업에서는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주소관리 업무 혁신 △주소정보 제공 및 활용체계 개편 △현장 행정시스템 개선 △자치단체 데이터 통합·이관 등 지난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에서 확정한 연도별 목표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

국토 국토부, ‘2023 지역개발사업’ 공모 실시 +

#국토교통부

○ 지난 4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주거·관광·산업여건을 개선하는 등 특색있는 지역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실시

-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에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과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사업’을 합쳐 총 13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
  - 2023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서는 각 사업별 최대 2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투자선도지구사업’은 최대 100억 원의 예산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인허가 의제 등의 규제특례를 복합 제공
  - 특히 2023년 지역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의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이 결합될 예정
-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7개 도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을 통해 오는 6월 13일까지 접수 가능
  - 접수된 지역개발사업은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8월까지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

보건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발표…14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4월 19일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을 기치

- 동 계획에서는 △보건의료기술 향상 △보건안보 위기시 100일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4대 추진전략, 14대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를 마련
  - 계획안에 따르면 △심뇌·응급·난임·소아 등 필수의료 정책지원 기술 개발 △암·치매 등 주요 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혁신기술 확보 △비용효과적인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기술 개발 △국민생활 건강증진 연구 강화 등을 위해 보건의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진행
  - 또한 백신·치료제 개발 및 선제적 감염병·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 △원천기술 기반 첨단재생의료 실용화 촉진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한의·피부·치의 건강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
  - 이에 더해 미충족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R&D 경쟁력 강화, 기술보유기업의 사업화 촉진, 규제 합리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보건의료 R&D 생태계를 조성

산업 인천시,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지구 후보지에 선정 +

#국도교통부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는 △인천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부평·주안산단)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부산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등 3곳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범부처 집중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을 ‘스마트·친환경·디지털 산업단지’로 전환할 계획

- 현재 국내의 산업단지는 노후화된 인프라, 미흡한 정주여건, 부족한 복지·문화시설 등의 노후 산업단지의 증가 문제와 더불어, 성장세 둔화 및 청년층 기피로 기업의 인재 확보 어려운 상황 등 산업단지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이에 정부에서는 노후거점산업단지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지자체가 세운 산업단지 경쟁력강화계획에 맞춰 국가 재원을 집중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육성·지원할 계획
  - 이번에 선정된 인천지역의 한국수출국가산단은 부평·주안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인천기계산단, 인천지방산단, 뷰티풀파크산단과 연계해 기업과 사람이 찾아오는 혁신지역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
  - 이를 위해 생산액 증가,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출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제조업 디지털전환 앵커기지 구축 △디자인 제조기업 혁신 △산업단지 친환경설비 인프라 지원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

참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한식진흥원, 「2022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분석편]」, 2023.01.13.
- 문화체육관광부, 「2023 해외 한류실태조사 요약편」, 2023.03.10.
- 중앙일보, “K푸드 수출 지난해 100억 달러 돌파… K팝스타·먹방·OTT 타고 인기 몰이”, 2022.06.04.
- 식품음료신문, “K-푸드 ”세계인이 즐기는 월드 푸드“”, 2022.09.28.
- 한국일보, “미국인 입맛 ‘점령’...K푸드 인기 급증”, 2023.04.11.
- 대한상공회의소, “한식산업화 국민 인식조사 및 공모전 결과”, 2022.12.29.
- Kotra, 「K-FOOD 지식재산 침해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2022.10.28.
- KBS, “K푸드 열풍인데…등록된 한식 이름은 8개 뿐”, 2023.03.25.
- 농림축산식품부,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로 농산업 혁신 동력 창출”, 2023.02.23.
- 농림축산식품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 2023.01.26.
- 중부일보, “곡물·자동차·철강 수출의 관문… '인천내항'은 국가 무역항의 상징”, 2022.12.19.
-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dream.kotra.or.kr
- Kati 농식품수출정보 해외시장동향 http://www.kati.net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첫 최상위 법정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2023.04.10.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A ROCKY RECOVERY」, 2023.0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물 내부 동·층·호까지 도로명주소 부여…지하상가도 주소 부여”, 행정안전부, 2023.04.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부, 2023 지역개발사업 공모…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 2023.04.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7년까지 보건의료기술 수준 선도국 대비 82%까지 향상”, 보건복지부, 2023.04.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노후산단, 경제거점으로 재도약…후보지에 ‘전남·부산·인천’ 선정”, 국토교통부, 2023.04.20.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2호(2023.04.28)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3년 04월 28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